

2008년 11월 17일 월 말씀

기계도 쇠붙이도 계속 손질 안 하면 아주 망가집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 약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픈 사람만 늘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다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생각을 못하고 신경 안 쓰고 먹는 것만큼 건강에 신경 안 쓰니 아픈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합니다. 수한 전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상상 못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열심히들 해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은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는 모두 사람을 다뤄보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밤, 낮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아시아 지역은 시차가 같아서 낮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유럽 쪽에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쉬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돌아다니며 60권 가까이 책을 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 교회 초창기에 돌아다닐 때 한번 돌아보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 꽤 끼치는 것 싫어하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피곤과 과로가 겹쳤던 것입니다.

여기 와서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면 지구상에 안 보이는 것까지, 영계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 온 후로 몇 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해 놓고 바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늘을 만나게 내가 기도해왔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다 기독교로 보내주었습니다. 78년도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전도해서 가르쳤습니다. 수 십 년이 가야 됩니다.

내가 세계 기도까지 다 하다보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